

2012 11.04 연중 제 31 주일

제 1 독서 : 신명기 6,2-6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제 2 독서 : 히브리서 7,23-28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복 음 : 마르코 12,28-34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오는 제 1 독서 신명기에서 하느님은 한분이시라고 분명히 말씀 하십니다. 그러함에도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대하여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나름대로의 하느님을 만들고 있는것입니다. 즉 하느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또는 하느님은 내가 무엇을 하던지 용서해주시는 자비의 하느님이시라고. 지금도 세상은 자기 식대로의 하느님을 무수히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커스필드만 하더라도 십여개의 교회가 서로 자기의 가르침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느님은 한분이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그분의 말씀은 성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즉 가톨릭교회의 교도권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참되고 올바르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1 월은 위령성월이며 동시에 교회의 전례력으로는 한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해마다 맞게되는 위령성월이지만 혹시 죽음에 대하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는지요?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삶을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되어서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제가 아는 대부분의 분들이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죽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해 봅니다. 내가 죽으면 과연 몇명이나 슬퍼서 울을까요? (아마도 잘죽었다고하지는 않을런지요?) 김 수환 추기경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기다리며 그 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에게 그분의 삶을 회상하며 깊은 감명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며칠전 뉴스에는 그분이 만들어 놓은 수단의 브라스밴드가 신부님의 조국을 방문하여 신부님의 무덤에서 연주를 하며 신부님 생각에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형제 자매님도 돌아가셨을때에 정말로 아까운 사람이었는데.... 정다운 사람이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더 데레사는 정말로 조그마한 분이시였습니다. 저도 작는데 제가 같이 서보니 제 어깨에 밖에 안 되실 정도로 키가 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을때에 온 세계가 그분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거렸습니다. 내 삶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죽은 후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삶을 살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대로 이세상에서 잘먹고 잘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성서를 보면 묘하게도 이때부터 사도들은 싸우기 시작 합니다. 그 전에는 그냥 예수님 하고 다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난후부터 제자들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 것만을 보고 눈에 콩깍지가 끼어 하느님을 제대로 볼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볼때 이세상의 고통들을 인내하고 감수 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을 등지고 사는 현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 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야고보와 요한을 책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평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 들이고 그 분의 말씀을 진정으로 실천하려 노력하여야 할것 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마음속 안에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내 형제들 안에서도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하는 면을 보려 노력 합시다. 나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내 이웃들에게 무엇을 보여 주며 살고 있는지? 내가 죽었을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녀을 잃고 울어 줄수 있는지? 오늘 미사중에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6,2-6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2 “너희와 너희 자손들이 평생토록 주 너희 하느님을 경외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그분의 모든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오래 살 것이다.
3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이것을 듣고 명심하여 실천하여라. 그러면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이다.
4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5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6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 두어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7,23-28

형제 여러분, 이전 계약의 23 사제들은 죽음 때문에 직무를 계속할 수가 없어 그 수가 많았습니다. 24 그러나 그분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영구한 사제직을 지니십니다. 25 따라서 그분께서는 당신을 통하여 하느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늘 살아 계시어 그들을 위하여 빌어 주십니다.
26 사실 우리는 이와 같은 대사제가 필요하였습니다.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떨어져 계시며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되신 대사제이십니다. 27 그분께서는 다른 대사제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치고 그다음으로 백성의 죄 때문에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으십니다. 당신 자신을 바치실 때에 이 일을 단 한 번에 다 이루신 것입니다.
28 율법은 약점을 지닌 사람들을 대사제로 세우지만, 율법 다음에 이루어진 맹세의 그 말씀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드님을 대사제로 세웁니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28 ㄱㄷ-34

그때에 28 율법 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29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30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32 그러자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33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34 예수님께서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